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vol.13

2017년 8월호

www.m-teacher.co.kr
edu.donga.com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학교를 ‘오고 싶은 학교’로, 상담실을 ‘학생들의 사랑방’으로

※ 이 사례는 박희진 경북 문명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 했습니다.



문명중은 학교 규율이 다소 엄격한 편입니다. 매달 간간한 두발 검사가 있고,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이처럼 다소 엄격하고 딱딱한 학교생활은 중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에게 고비입니다. 달라진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지요. 입학식이 치러진 3월, 이런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문득 학교를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느끼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실은 너희들의 사랑방이란다”

상담실의 문턱을 낮춘 ‘프리 티 데이(Free Tea day)’는 학교를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동시에 학생들이 상담실과 보다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상담실이라고 하면 여전히 ‘문제 있는 학생들이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지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상담실에 초콜렛과 핫초코, 울무차 등 먹을거리를 갖춰 두고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간식을 먹으며 상담교사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 큰 품을 들이지 않는 소소한 이벤트였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종이컵에

따른 차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는 학생들과 저 사이에 여러 이야깃거리가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즐겨 하는 게임은 무엇인지, 걱정스러운 고민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와 간식을 먹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 상담하시는 건가요?”,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있나요?”라며 인사 차 한두 가지 묻던 아이들이 이후 몰래 상담을 신청해 오곤 했다는 점입니다. 프리티 데이를 통해 상담실의 문턱을 낮추니 제가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학생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응원과 격려, ‘친구야 힘내’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는 상담실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이뤄졌습니다. 학교의 여러 선생님과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등굣길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하이파이브 등굣길 캠페인’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지요. 등굣길 캠페인은 학생부장 선생님 등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약간 경사진 등굣길 주변으로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친구야 힘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무섭기만 했던 학생부장, 교무부장 선생님과 상담교사인 저, 또래 학생들 몇몇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시도했습니다. 다소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등굣길 아침 주고받는 하이파이브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학교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은 학생들에게 ‘긴 시간 동안 선생님에게 여러 이야기를 털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심리적 장벽 없이 누구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간단한 캠페인을 시도해보세요. 학교 전체를 금세 밝고 힘찬 기운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경기지역 수석교사 연합동아리 ‘경기도 교-수-평-기 연구회’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로 건강한 수업 만들어요”



‘교-수-평-기 일체화 모형’을 연구하는 ‘경기도 교-수-평-기 연구회’ 교사들. 우치갑 수석교사 제공

최근 수업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교사들은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고, 다양한 학생 중심 수업방안을 고안해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경기지역 중학교의 수석교사들은 올해 초 ‘경기도 교-수-평-기 연구회’를 만들었다. ‘경기도 교-수-평-기 연구회’는 ‘경기도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연구회’의 줄임말로, 각기 다른 학교의 수석교사 6명이 모여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중심 수업 방안 및 과정 중심 평가와 기록 방안에 대해 직접 연구한 뒤 자신이 소속된 학교 교사들에게 공유하는 연합동아리다.

이 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치갑 경기 늘푸른중 수석교사에게 교사연구회의 효과와 운영방식에 대해 들어봤다.

교사·학생 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 연구회의 이름인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교-수-평-기) 일체화’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하나의 연속된 교육 활동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교-수-평-기 4개의 과정이 따로 진행될 경우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과정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체 교육과정을 토의·토론 수업으로 진행한 뒤 지필고사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면, 학생들은 여태껏 열심히 참여해온 수업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준으로 평가받는 셈. 이 경우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시험 점수만 잘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업 준비와 별개로 시험 준비를 하고, 학기 말에 학생부까지 기록해야 하는 교사도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우치갑 교사는 “교-수-평-기 일체화는 학생과 교사 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 “학생들은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이 과정은 곧 평가와 기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한다. 교사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쉽게 파악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산이 목표

경기도 교-수-평-기 연구회는 교-수-평-기 일체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업 모형을 개발한다. 한 달에 두 번 경기지역의 △늘푸른중(우치갑) △별가람중(류미경) △송라중(김미나) △양오중(유희선) △천보중(이영옥) △퇴계원중(사경희) 수석교사들이 모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시키는 것.

우 교사는 “수석교사들이 각자 담당하는 교과와 한 단원씩을 선정한 뒤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하브루타, 비주얼씹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중심 수업을 구성해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든 수업 모델을 일반 교사들과 공유하며 교-수-평-기 일체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 연구회의 목표. 경기도 교-수-평-기 연구회의 선대로 현재 대구,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도 교-수-평-기 연구회도 운영된다.

우 교사는 “교-수-평-기 일체화가 확산되면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져 건강한 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연구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밴드(band.us/@u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